# 선 교 보 고 서 (2026 년 3 분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갈 6:9)

## 1. 네팔의 대홍수와 산사태 (2026.8.26)

네팔 중북부 지역을 갑자기 강타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와 형용할 수 없는 재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ㅅㄱㅅ 협회와 네팔 기독교 단체가 공동으로 연합하여 긴급 구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가 끊긴 상태이기에 구호작업이 쉬운 상황은 아니나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고립된 산간마을과 ㄱㅎ등 피해지역을 찾아가 의료, 식료품 및 의류 물자를 조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의 집이 피해가 심각한 러수와 이기에 긴장하고 ㄱㄷ하던 중, 3 일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다행히도 피할 길을 주셔서 대홍수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기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가족과.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 이들이 다시 일어설 소망을 얻도록 ㄱㄷ해 주십시오.










## 2. LPG 가스 대란.

현재 네팔은 심각한 가스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네팔은 도시가스 배관이 없기에 LPG 가스가 떨어지면 밥을 지어먹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전쟁의 악재와 대홍수로 인해 겹쳐진, 설상가상의 심각한 상황 때문입니다.

가스를 구입하기 위해 빈 가스통을 들고 하루 종일 줄을 서야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번호표를 도입해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 3. 6 명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도된 새 신자 6 명이 일정한 성경공부를 마친 후, 8 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모든 성도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침례식(네팔교회 전통임)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새 신자 교육과 침례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 앞에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영적 울림을 주었습니다. 혹여 힌두인들에게 발각될세라 모든 교인들이 조심하는 모습과 저를 보호하려는 모습은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땐 6 명의 성도들이 앞으로 헵시바교회의 든든한 지체로 자라나길 ㄱㄷ하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4. 연합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11 월 10~11 일 로컬 네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틀 동안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믿음의 성장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제와 방향성을 잘 잡아서 영적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길, 연합한 4 교회가

서로를 위해 ㄱㄷ해 주는 중보ㄱㄷ의 파트너가 되길, 다른 교회의 영적 성장을

바라보며, 거룩한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되길 ㄱㄷ해 주세요.

## 5. ㄱㄷ 제목

1) 네팔이 속히 개종 금지법이 풀려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길.
2) 대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재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 간절한 중보ㄱㄷ와 지속적인 사랑이 흘러 들어가길.
3) LPG 가스 대란이 속히 풀리길.
4) 연합 세미나를 통해 믿음의 회복과 교회 성장이 있길.
5) 김태순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

3 분기의 선교의 여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을

믿으며, 늘 ㄱㄷ와 물질로 방패가 되어주며 선교의 최전방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시는 존귀하신 ㅁㅅ님과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저이머시!***

네팔에서 김태순 ㅅㄱㅅ 드림.